



[산업] SKT 포스트 코로나 혁신 고배 “구시대 공식 캔다” 06



Life

[라이프] 산으로 바다로~ 캠핑족 기지개 아웃도어 수요 급증 니



국경 개방하고 “웰컴”... 지구촌 관광 다시 꽃 피우나



/체코관광청

XGOLF ‘반바지 캠페인’ 골프장 190곳으로 확대

국내 골프 부킹 서비스 XGOLF(대표 조성준)가 여름철을 맞아 ‘2020 반바지 라운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7년 연속 시행되는 반바지 라운드 캠페인은 XGOLF가 업계 최초로 도입해 매년 여름 실시하고 있다. 매 해 골퍼들로부터 ‘한여름에도 쾌적하고 건강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호평을 얻고 있는데, 올해는 190 여개소로 늘었다.

XGOLF는 브랜드 모델인 프로골퍼 유현주와 함께 한 홍보물을 골프장에 배포해 ‘올바른 반바지 라운드 착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하의는 무릎길이의 단정한 반바지를 입되 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카라 셔츠의 상의에 양말까지 필수로 갖춰 신으면 된다. 반바지 안에 레깅스를 받쳐 입는 경우 단색이어야 한다.

캠페인 시행을 기념해 7월 말까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반바지 라운드를 마친 후 이미지와 함께 후기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스릭스 보스턴백, 골프공 및 XGOLF와 제휴된 300여개의 골프장을 매일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한 총무회원 6개월 권을 증정한다.

또, 각 골프장에 비치된 올바른 반바지 라운드 착용법 홍보물과 함께 인증 사진 및 이용 후기를 남기면 5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준다. /이민희 기자



야놀자의 김종윤 온라인부문 대표(왼쪽)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야놀자

야놀자, 관광 프로젝트 성과 강원도로부터 ‘감사패’ 수여

글로벌 여가 플랫폼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강원도와 진행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다.

2개월간 진행된 프로젝트의 성과는 강원도 여행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기간(2020년 4월 6~5월 31일)중 야놀자 앱에서 강원도 지역 상품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3.1% 증가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실의에 빠져 있던 강원도민들과 지역 업체들의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종윤 야놀자 온라인 부문 대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지역 관광 성장이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스페인 문호 개방 “한국인 환영” 체코·프랑스 15일 국경 재개방 호주 퀴즈랜드 12일부터 관광 해외 항공사 국제선 운항 재개

대만, 호주, 프랑스, 독일 등 한국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각국 관광 기관들이 5월 25일을 기점으로 여행재개, 국제·국내선운항 재개 등을 추진한다. 각국 관광청 및 주요 여행전문가들에게 코로나 팬데믹 후 관광재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호주 퀴즈랜드주 관광청은 12일을 기점으로 퀴즈랜드주 프레이저호텔 등 인근 주요 호텔들이 오픈하고, 래밍턴 국립공원도 관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만교통부는 대만 외국인관광 입국이 10월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지난 달 25일 밝혀 주목을 받고있다. 대만 교통부가 밝힌 표를 보면 우선 7~8월에 국내 단체관광부터 먼저 진행하고 10월에 외국인 단체 관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표기돼 있다.

해외관광은한국·일본·동남아시아를 먼저 진행하고 45인승 버스에 20인 승객 이하만 탑승, 10인 원탁 테이블 8인 이하로 축소, 호텔방은 1인1실 또는 2인1실로 정한다고 표기돼 있다.

지난 1일 만난 타이완관광청 황이평 소장은 “최근 대만 교통부에서 받은 기쁜 소식은 올 하반기 김포~가오슝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한 횟수)을 확인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오슝은 골프관광 및 일반관광 지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국 국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않았기때문에 여러 관



에티하드항공은 아부다비 국제공항(ADAC)과 협력해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웰니스 앰버서더를 소개할 예정이다. 체코인부터 보안, 출입국 관리, 면세점과 라운지 이용 및 항공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 공황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든 여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관리와 지원이 제공되므로 승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다. /에티하드항공

관광산업·상황등 지켜보며 진행될 것입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전 체코는 한국인들에게 유럽에서 가장 인기 여행지 중 하나로서 연간 약 40만명의 한국인 여행객이 찾았다.

체코항공은 5월 초 단거리인 파리, 암스테르담 그리고 푸랑크푸르트로 노선으로 시작해 5월 말부터는 스톡홀름과 부크레슈티의 노선을 재개했다.

체코 관광청은 5월 26일부터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바키아 같은 인접 국가 국경이 개방되며 관광객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주한 체코대사는 “체코 정부는 현재 ‘셧던 지역’ 내 여러 국가와의 양자 협정을 따라 관광객을 위한 국경 재개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행자를 포함한 다른 여행객들의 입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6월 15일까지 비셧던 국가의 외국인이 유럽 연합

(EU)에 입국하는 것에 대한 EU의 금지로, 체코 보건부에서 실제로 여행 제한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코 보건부는 한국인 여행자들을 위해 국경을 곧 개방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관광 강국 스페인도 한국 여행객에게 다시 문호를 개방한다. 스페인 산체스 총리는 지난 5월말 스페인이 7월부터 다시 세계인들에게 관광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스페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62만9481명이었고, 총 지출 금액은 6억유로다.

스페인관광청 아시아 총괄 마지 카스텔로트 디렉터는 “한국은 이번 코로나 방역 위기에서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한국인들을 더 환영합니다. 한국은 질병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관광업도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8일,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안정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봉쇄 조치의 2단계 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아직 감염 경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일부 지역(일드프랑스, 마요트, 기아나)을 주황색으로, 그외 프랑스 전 지역을 녹색 지역으로 분류했다.

카롤린 르부세 프랑스 관광청 대표는 “6월 15일, 유럽 국가 내 국경 재개방이 확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 관광업계는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협업하며 업계 종사자들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위생 수칙을 마련하고 있다. 추후 프랑스를 찾는 관

객들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크루아상과 모닝커피를 즐기고, 와인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다시 프랑스 여행 감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업계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스위스 항공, 오스트리아 항공, 브뤼셀 항공, 에어 돌로미티 등이 소속된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6월부터 국제선 노선을 포함한 항공편 운항을 확대한다.

한국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인천-뮌헨 노선을 주 3회(월, 수, 금) 운항한다. 이는 한국 및 유럽의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춘 것으로, 국내 취항하고 있는 유럽 항공사 중 빠르게 한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다.

알레한드로 아리아스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 한국 지사장은 “기존 스케줄보다는 감소된 운항 편수이지만 한국 노선 운항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추후 국가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루프트한자는 한국 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퍼시픽과 자회사 세브고는 필리핀 내 검역과 여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2일부터 부분적으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국제선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운항이 중단된 상황이다.

아랍 에미리트 국영 항공사 에티하드 항공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건강한 항공 여행을 위한 강화된 위생 수칙과 고객 지침을 안내하는 ‘에티하드 웰니스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